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율법을 전수하는 모세

9 모세가 이 율법을 써 내려갔고 여호와와 언약궤를 짊어지는 레위의 아들들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10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7년마다 빛을 탕감해 주는 해의 초막절 동안 11 온 이스라엘이 그분이 선택하신 그 장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오면 너희는 이 율법을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읽도록 하라. 12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까지 온 백성들을 모아 그들이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며 13 이 율법을 모르는 그들의 자손들이 그것을 듣고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타락하게 될 이스라엘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수아를 불러 너희 둘이 회막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거기서 그에게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는 회막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15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구름기둥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구름기둥은 회막 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6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잠들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의 이방 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17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것이다. 18 그리고 나는 그날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그들의 모든 악함으로 인해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3 목상하기

죽음을 앞둔 모세(14절)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책임을 다합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백성이 율법을 잊지 않도록 모든 율법을 기록해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에게 전해주고(9절), 그것을 정기적으로 백성에게 들려주어 대대손손 지키게 합니다(10-13절). 또한 자신을 이을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14절). 모세는 자신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끝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 타락할 것이고(16절), 그러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17절). 그러나 모세는 알면서도 백성에게 율법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씀 가르치기에 힘썼던 모세의 열심이 점차 크리스천이 희귀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4 적용하기

나는 이 땅에서 어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나 혼자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말고 내 곁의 소중한 사람들도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설령 그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실망하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께서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모세는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백성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시켰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 ② 내가 함께 구원받도록 이끌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설령 실망시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저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위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증거가 될 노래를 가르치라

19 이제 너희가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들을 향한 내 증거가 될 것이다. 20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낸 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해 나와의 언약을 깰 것이다. 21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 대해 증인처럼 증거할 것이니 이 노래는 그 자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로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22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기록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23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증거가 될 율법책

24 모세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나서 25 이 명령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26 "이 율법책을 가져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보관해 그것이 너희를 향한 증거가 되게 하라. 27 너희가 얼마나 반역을 일삼고 목이 곧은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보라. 오늘 내가 아직 너희 곁에 살아 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 반역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얼마나 반역하겠느냐? 28 내 앞에 너희 지파의 모든 장로들과 너희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늘과 땅을 불러 그들에 대한 증거로 삼을 것이다. 29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분명 완전히 타락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떠날 것임을 내가 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해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그분을 진노케 했기 때문이다."

3 묵상하기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백성에게 가르치라 하십니다. 그 내용은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저지를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훗날 백성이 죄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될 때, 이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의 죄를 미리 노래로 경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회복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을 봅니다. 한편, 모세는 지금껏 자신이 가르친 율법의 내용을 책에 기록해 언약궤에 보관하게 한 뒤, 다시 한 번 장로들과 관리들을 불러 당부를 하는 것으로 길고 길었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28-29절). 앞으로 이스라엘은 흔들리고 넘어지겠지만 그의 열심과 희생을 먹고 자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해가는 길고 긴 여정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4 적용하기

노래를 남겨서라도 훗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사역했던 모세의 열심이 오늘 이 세대의 수많은 영혼을 위한 나의 마음이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 뿐이지만, 한 영혼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본다면 오늘도 내 안에 소망과 위로가 넘칠 것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나에게도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노래'(21절)와 같은 장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② 하나님의 포기 없는 사랑과 모세의 열정적인 헌신을 본받아 오늘 내가 또다시 두드리고 보듬어야 할 영혼은 누구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제 연약함을 아심에도 끝까지 포기 않고 품으시는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비뚤어지고 그릇된 세대가 된 백성

30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듣는 데서 이 말씀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송했습니다. 1 "하늘이여, 들으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 2 내 가르침이 비같이 내리고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새싹이 돋아나는 들녘에 내리는 이슬비 같고 채소밭에 내리는 많은 비 같을 것이다. 3 내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위대함을 찬양하라! 4 그분은 반석이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올바르다.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5 그들은 그분께 악한 짓을 저질렀으며 수치스럽게도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자녀가 아니고 비뚤어지고 그릇된 세대다. 6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너희가 여호와께 보답하는 게 이것이냐? 너희를 만들고 지으신 분이 너희 창조자이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옛날을 기억하라

7 옛날을 기억하라. 오래전 세대들을 생각해 보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말해 줄 것이다. 너희 장로들에게 여쭙 보라. 그들이 설명해 줄 것이다. 8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땅들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실 때, 그분이 온 인류를 여기저기로 흠으실 때 그분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수에 따라 그 민족들의 경계선을 정해 주셨다. 9 여호와와 묶은 그분의 백성들이고 야곱은 그분께서 택하신 기업인 것이다. 10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11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엮는 것 같다. 12 여호와께서 홀로 야곱을 이끄셨으니 다른 어떤 이방 신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 13 그분은 야곱이 그 땅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고 들판의 열매로 그를 먹이셨다. 그분은 바위에서 꿀을 내어, 딱딱한 바위 틈에서 기름을 내어 그에게 힘을 북돋우셨다. 14 소와 양에서 나온 버터와 우유로, 살진 어린양들과 염소들로, 가장 좋은 바산의 숫양으로, 가장 좋은 밀가루 반죽으로 그에게 힘을 북돋우셨다. 너희는 거품이 나는 붉은 포도즙을 마셨다.

3 묵상하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가르쳐 훗날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신 노래(31:19)의 실제 내용입니다. 43절까지 계속되는 긴 노래의 시작 부분인 오늘 본문은 위대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비해 그분의 백성은 악하고 비뚤어져 있음을 먼저 지적합니다. 이어서 그런 백성에게 “옛날을 기억하라”(7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힘 없이 강대국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던 민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부족함 없이 돌보셨으며, 위기 때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힘을 북돋우셨습니다(10-14절). 이것이 백성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이스라엘은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백성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나 역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신 데 반해, 변하는 쪽은 늘 백성이었습니다(5절). 그들처럼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비뚤어지고 그릇된 세대가 지금 내 모습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내게 먼저 찾아오셨고, 매 순간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지금도 세심히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만히 되짚어 보세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오늘이 될 것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에 역사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은혜들을 베푸셨나요?
- ②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이스라엘의 반역

15 여수론은 살이 찌자 발로 찼다. 네가 살찌고 똥똥해지고 기름으로 덮이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구원자이신 반석을 거부했다. 16 그들은 이방 신들로 그분을 질투하시게 했으며 그 가증스러운 우상들로 진노하시게 했다. 17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쳤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 나타난 지 얼마 안 된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에게 말이다. 18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되신 반석을 버렸고 너희는 너희를 낳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19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저버리셨다. 이는 그 아들과 딸들이 그분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20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 볼 것이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이고 믿음이 없는 자녀다. 21 그들은 신이 아닌 것에 나로 하여금 질투하게 했고 그 쓸모없는 우상들로 나를 진노하게 했다.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22 내 진노에 불이 붙었으니 저 아래 죽음의 왕국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것은 땅과 그 수확물을 삼키고 산 밑 깊은 곳까지 불을 지를 것이다. 23 내가 그들에게 재난을 쏟고 내 화살들을 그들을 향해 쏠 것이다. 24 내가 그들에게 파괴적인 굶주림을 보내고 진멸하는 페스트와 죽음의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향해 들짐승의 송곳니를 보내고 흙 위를 미끄러져 가는 독사들의 독을 보낼 것이다. 25 밖으로는 칼이, 안으로는 공포가 젊은 남녀를 멸할 것이며 머리가 희끗한 노인과 젖을 먹는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원수들의 오해를 바로잡으실 것임

26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인류에게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했으나 27 원수가 조롱해 댈까 두려워했다. 그 적들이 왜곡해 "우리 손으로 승리했다.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한 게 아니다" 할까 걱정이로구나. 28 그들은 분별력 없는 민족이며 그들에게는 판단력이 없다. 29 그들이 현명해 이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분간했다면 좋았을 것을! 30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아 버리지 않았던들,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들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쫓아가고 두 사람이 어떻게 1만 명을 도망치게 하겠느냐? 31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은 우리 적들도 인정하는 바다. 32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왔고 고모라의 포도나무에서 나왔다. 그들의 포도는 독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포도송이는 쓴맛으로 가득 찼다. 33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고 독사들의 무서운 독이다. 34 내가 이것을 보관하고 내 창고에 봉인해 두지 않았느냐? 35 복수하는 것은 내 일이다. 내가 갚아 줄 것이다. 때가 되면 그들의 발이 미끄러질 것이다.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이 왔고 그들의 멸망이 그들 앞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36 그들의 힘이 사라지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아무도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3 묵상하기

여수룬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애칭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발로 차고 저버리고 거부합니다(15절). 심지어 살아 계신 하나님 대신 죽은 우상을 섬겨 그분을 진노하게 만듭니다(16절).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도 아버지를 거부하며 제멋대로 살겠다며 집을 나간 자식처럼 말입니다. 사랑스럽던 '여수룬'이 비뚤어지자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고(20절), 고난 중에도 내버려두십니다(24-25절). 스스로 아버지를 찾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온다면, 결국 주님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민족을 징계하시며(27-36절)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4 적용하기

아버지께 넘치는 사랑을 받고도 아버지를 거부한 이스라엘처럼 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긴 채 다른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비뚤어진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내버려두심입니다. 아버지의 돌봄 없이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뼈저리게 깨닫고 상처받고 울며 방황하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그 사랑을 꼭 붙잡고,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나도 백성처럼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배부르고 편안할 때는 내 마음에 드는 다른 것들을 쫓느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비뚤어진 자녀는 아닌가요?
- ②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하고 노력해서 이룬 것들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27절)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아버지의 돌보심이 아니면 저는 언제든 넘어지고 상처받는 연약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37 그분이 말씀하실 것이다. '지금 그들의 신들이, 그들이 피신처로 삼은 바위가 어디 있느냐?
 38 그들의 희생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물인 포도주를 마신 그 신들 말이다.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피난처를 주게 하라. 39 이제 내가 바로 그임을 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내가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하는 것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건져 낼 자가 없다. 40 내가 내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선포한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41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날카롭게 갈고 심판 때 내 손이 그 칼을 잡을 때 내가 내 원수들에게 앙갚음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42 내 화살들이 피로 가득하겠고 내 칼이 살해된 자와 잡힌 자들의 피와 함께 육체를 삼킬 것이니 곧 대적의 머리다.' 43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분이 그분의 종들의 피에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분의 땅과 백성들이 지은 죄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44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와 백성들이 듣는 데서 이 모든 노래로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45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다 낭송한 후에 46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진지하게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해 삼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47 가르침은 너희에게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너희는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맞을 최후

48 바로 같은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9 "일어나 아바림 산맥으로 들어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의 느보 산으로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유물로 주는 땅 가나안을 바라보아라. 50 네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네 선조들에게로 돌아간 것같이 네가 올라가는 산에서 죽어 네 선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51 이는 너희가 신 광야의 므리바 가데스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신의를 저버렸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52 그러므로 너는 네 앞에 있는 땅을 볼 수는 있겠으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3 묵상하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신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엇나가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을 통해 징계하신 후에,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였던 이방 민족 역시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도 심판을 당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살아 계신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긴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백성에게는 수많은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는 단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51-52절). 그는 분명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그의 사역은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눈앞에서 못 이루는 것이 아쉬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내려놓은 모세처럼, 나도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때와 멈출 때, 놓을 것과 잡을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4 적용하기

단 한 번의 불순종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백성 또한 언제든 회복할 수 있으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면 오늘 마주할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나의 선택은 언제나 순종이고, 말씀이어야 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살아계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대신 허상인 우상을 섬기다 멸망한 이방 민족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붙잡고 있는 허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② 오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멈추거나 시작해야 할 일은 무엇 인가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의 말씀만을 제 삶의 기준과 방향으로 삼겠습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축복에 앞서 여호와를 찬양함

1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축복이 다음과 같습니다. 2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나와 세일에서 그들 위에 일어나셨고 바란 산에서 빛을 내셨다. 그분은 서쪽에서, 그분의 산비탈에서 무수한 성도들과 함께 나오셨다. 3 정말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분명 그분이다.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 그분의 발 앞에 그들 모두가 절하고 그분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 4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율법, 야곱의 총회가 소유한 것 말이다. 5 그분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모였을 때 여수론을 다스리는 왕이셨다.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를 위한 축복

6 르우벤이 살고 죽지 않을 것이며 그의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7 그리고 그는 유다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십시오. 그에게 그 백성들을 보내 주십시오. 자기 손으로 스스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대항해 그의 도움이 돼 주십시오!" 8 레위에 관해 그가 말했습니다. "주의 둠뭉과 우림이 주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맛사에서 그를 시험하셨고 주께서 므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9 그가 자기 부모에 관해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칼을 바라보고 주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10 그가 주의 훈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 그가 주 앞에 향품을 드리고 주의 제단에 온전한 번제물을 올립니다. 11 여호와여, 그의 모든 기술에 복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을 기뻐해 주십시오. 그를 대항해 일어나는 자들의 허리를 끊으시고 그 적들이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쳐 주십시오." 12 베냐민에 관해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분 안에 안전하게 쉬게 될 것이다. 그분이 온종일 그를 방패처럼 지키시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분의 어깨 사이에서 쉬고 있구나." 13 요셉에 관해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땅을 저 위 하늘의 귀한 이슬과 저 아래 저장한 깊은 물로 복 주시기를! 14 해가 내는 가장 좋은 빛으로, 달이 내는 가장 좋은 빛으로, 15 옛 산들의 가장 좋은 선물로, 영원한 언덕의 많은 열매들로, 16 땅과 그 충만함의 가장 좋은 선물로, 불타는 덩불 속에 계셨던 분의 은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 머리 위에 머물기를, 그 형제들 가운데 왕자인 그의 눈썹에 있기를! 17 그의 위엄은 수송아지의 첫배 새끼 같으며 그의 뿔은 들소의 뿔과 같도다. 그 뿔들로 그가 민족들을 받을 것이고 땅끝에 있는 민족들까지 받을 것이다. 에브라임에게는 만만이요, 므낫세에게는 천천일 것이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